



**덴동어미화전가
전문
평가원화**

편집: 자이오노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세 가세 화전 가세 꽃 지기 전 화전 가세
 이때가 어느 때가 때마침 삼월이라
 봄날 신이 은혜 덕택 베풀어서
 봄 날씨 화창하고 따뜻하니 때가 맞고
 꽃 피우려 부는 바람 붓을 들어
 온갖 물상 고운 색을 흐드러지게 칠하니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놀이 하여 보세
 문밖으로 나들이도 못 하였나니
 소풍도 하려니와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 있게 돌아보세
 어떤 부인 마음 커서 가루* 한 말 피내 놓고
 어떤 부인 마음 적어 가루 반 되 떠내 주고
 그럭저럭 주워 모아 보니 가루 닷 말 가웃* 지네
 어떤 부인 참기름을 내어놓고
 어떤 부인 들기름을 내어놓고
 어떤 부인 많이 내고 어떤 부인 적게 내니
 그럭저럭 주워 모아 보니 기름이 반동이나 넉넉하구나
 낫소래*로 두세 채라 짐꾼 없어 어어 할꼬
 상단아 너는 기름 이어라 삼월이 불러 가루 이어라
 취단이는 가루 이고 향단이는 낫소래를 이고 가라
 열여섯 열일곱 새댁은 갖은 단장 옹게 한다
 청실홍실 감아 들고 눈썹을 지워 내니
 가는 붓으로 그려 듯이 누에 수염 팔자 눈썹 어여쁘다
 양색단 겹저고리 길상사 고쟁이
 잔줄누비 겹허리띠 맵시 있게 잘끈 매고
 광월사 치마에 분홍 댕기 툭툭 털어 둘러 입고
 머리 고개 곱게 빗어 잣기름 발라 손질하고
 공단 댕기 갑사 댕기 수부귀 다남자를 딱딱 박아
 푸른 진주 붉은 진주 곱게 붙여 착착 접어 곱게 매고
 금죽절 은죽절 좋은 비녀 뒷머리에 살짝 꽂고
 은장도 금장도 갖은 장도 속 고름에 단단히 차고
 은조롱 금조롱 갖은 패물 겹고름에 비껴 차고
 일광단 월광단 머리에 쓴 보자기는
 회고 가는 손으로 감아 들고
 삼승버선 수당혜를 날 출자로 신었구나
 반만 웃고 썩 나서니 일행 중에 제일일세
 광한전의 선녀가 내려왔나 월궁의 향아가 하강했나
 있는 분은 그렇게 차리려니와
 없는 분은 있는 대로 차려 입지
 양대포 겹저고리 숨씨 있게 지어 입고
 칠승포에다 갈물로 물 들여
 일곱 폭 치마를 펼쳐입고
 칠승포 삼베 허리띠를 재주 있고 맵시 좋게 둘러 띠고
 굵은 무명 겹버선을 쓸쓸하게 빨아 신고
 돈 반짜리 짚신이라 그도 또한 소박하다
 열일곱 살 청춘과부 나도 같이 놀러 가자
 나도 인물 좋건마는 단장할 마음 전혀 없어
 때나 없게 세수하고 거친 머리 대강 만져
 낫 비녀를 슬쩍 꽂고 눈썹 지워 무엇하리

광목 당목 남빛 치마 끝동 없는 흰 저고리
 흰 고름을 달아 입고 전에 입던 고쟁이
 대강대강 수습하여 입었으니 어련하고 무던해도 괜찮다네
 건넛집의 텐동어미 옛 한 고리 이고 가서
 가지 가지, 가고 말고, 낸들 어찌 안 가리까
 늙은 부녀 젊은 부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마디로 행차가 장관이라
 - 작자 미상, 「텐동 어미 화전가」 -

- * 가루: 화전을 부치는 데 쓰는 찹쌀가루.
- * 가웃: 되·밀·자의 수를 셀 때 남는 절반 정도의 뜻.
- * 낫소래: 굵이 없는 널찍한 낫그릇.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흥이라 비봉산은 이름 좋고 놀기 좋아
 골골마다 꽃빛이요 등성이마다 꽃이로세
 호랑나비 범나비아 우리 같이 화전하나
 두 날개를 툭툭 치며 꽃송이마다 밟고 날아오르네
 사람 간 데 나비 가고 나비 간 데 사람 가니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간 곳마다 동행하네
 꽃아 꽃아 진달래꽃아 네가 진실로 참꽃이로구나
 산으로 이른다면 두견산은 귀축도 귀축도 관중이요
 새로 이른다면 두견새는 붙여귀 붙여귀 산중이요
 꽃으로 이른다면 두견화는 불긋불긋 온 산에 가득이라
 곱고 곱다 진달래요 사랑하다 진달래요
 넓게 퍼진 진달래요 갖은 빛깔 진달래라
 치마 앞에 따 담으며 바구니에도 따 담으니
 한 줌 따고 두 줌 따니
 봄빛이 바구니 속에 곱게 머무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꽃송이 툭툭 꺾어
 양쪽 손에 갈라 쥐었으나
 잡아 뜯을 마음이 전혀 없어 향기롭고 이상하다
 손으로 덥석 쥐어도 보고 몸에다 툭툭 털어도 보고
 낮에다 살짝 문대어도 보고 입으로 함빡 물어도 보고
 저기 저 새댁 이리로 오게 고와라 고와라 꽃도 고와라
 노을처럼 고운 빛은 자네 얼굴 비슷하이
 방실방실 웃는 모양 자네 모양 방불하이
 고양이의 속 수염은 자네 눈썹 똑같이
 아무래도 딸 맘 없어 뒷머리에 살짝 꽃아 놓았더니
 앞으로 보아도 꽃과 같은 모습이요
 뒤로 보아도 꽃이로다
 상단이는 꽃 데치고 삼월이는 가루즙 풀고
 취단이는 불 넣어라 향단이가 떡 굽는다
 맑은 시내 넓은 바위 펼쳐진 곳에
 노소 갈라 자리를 펼치고
 꽃 떡을 한편으로 드리나마 노인부터 먼저 드리어라
 옛과 떡과 함께 먹으니 향기에 그 맛이 더욱 좋다
 배 두드려 실컷 먹고 서로 보고 하는 말이
 일년 한번 화전 놀음 여자 놀음 제일일세
 노고지리 쉼 길 높이 떠 빌빌뻔뻔 피리 불고
 오고 가는 빠꾸기는 빠꾸빠꾸 버꾸 치고
 봄빛 속에 잠자던 피꼬리는
 좋은 노래 부르면서 벗을 찾고
 호랑나비 범나비는 머리 위에 춤을 추고
 말 잘하는 앵무새는 잘도 논다 치하하고
 천 년 만에 날아온 학두루미 요지연*인가 의심하네
 어떤 부인 글 잘해서 내칙편을 외워 내고
 어떤 부인 흥이 나서 칠월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부르네
 그중에도 덴동어미 멋 나게도 잘도 노니
 춤도 추며 노래하니 웃음소리 낭자하네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요지연: 신녀(神女)인 서왕모(西王母)가 반도(蟠桃)라는 복숭아가 삼천 년 만에 열리면 신선들을 초대하여 열었다는 잔치.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중에도 청춘과부 눈물 콧물 피죄죄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이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눈물 한숨 웬일이오
 비단 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열네 살에 시집올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하거니 이별 말자 서로가 맹세하고
 백 년이나 함께 살자 하였더니
 겨우 삼 년 함께 살고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 세요 나는 겨우 십칠 세라
 신선 같은 풍채 가진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볼꼬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 애고 답답하다
 십육 세에 요절한 이 임뿐이요
 십칠 세의 과부된 이 나뿐이지
 삼사 년이 지났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보일 듯 또렷하고
 그 말소리 귀에 들릴 듯 울리노니
 마음에 들어 즐겁던 우리 낭군 자나 깨나 잊겠는가
 잠이나 자주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꾸야 임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임을 잠깐 만나
 여러 정옛말을 다 하려 하였더니
 한바탕 이야기를 채 못하여 피꼬리 울음에 깨어나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촛불만 깜박이며 꺼지지 않았구나
 아까 울던 저놈의 새
 그대들은 듣고 나서 울음이 좋다 하되
 나와는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을 깨우려고
 임 그리던 이내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헤아리던 차에 화전놀이 좋다 하니
 품은 마음 조금이나 풀까 하고 자네 따라 참여하니
 가는 곳마다 사무치는 슬픈 마음뿐이로세
 보느니 족족 눈물이요 들으니 족족 한숨일세
 천하 만물 짝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마음이 바뀌고
 꽃 핀 걸 보아도 몹시도 슬픈데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해야 좋을 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 어찌할꼬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청실홍실: 혼례 때 쓰는, 남빛과 붉은빛의 명주실 테.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마음 좋게 먹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어이 없을까마는 간다는 말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한평생 함께 산다 해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 과부 된다 해도 내 팔자라
 팔자 좋을 양이라면 십칠 세에 과부될까
 팔자 피해 도망하지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이방의 딸이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 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 읍내 그 중 큰 집
 여장 차려 들어가니 장이방의 집이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하고 비범하며 충체가 넉넉하고
 시부모님 찾아보니 사랑이 거룩하네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마침 단오여라
 삼백 길 높은 가지 그네를 뛰다가서
 그넷줄이 떨어지며 공중에서 메어 박히니
 그만 몸이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신혼 정이 미흡한데 십칠 세에 과부 되네
 하늘을 부르면서 통곡하며 슬피운들 죽은 낭군 살아올까
 한숨 모아 큰바람 되고 눈물 모아 강물 된다
 낮밤 없이 몹시도 슬피 우니 보는 이마다 눈물 나네
 시부모님 하신 말씀 친정 가서 잘 있거라
 나는 아니 가려 하니 달래면서 타이르니
 할 수 없어 허락하고 친정이라 돌아오니
 삼백 길 높은 나무 나를 보고 흐느끼는 듯
 떨어진 곳 님의 넋이 나를 보고 우는 듯
 너무 답답 못 살겠네 밤낮으로 통곡하니
 양쪽 부모 의논하고 상주읍에 중매하네
 이상찰의 며느리 되어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가니
 가세도 웅장하고 시부모님도 자애롭고 후덕하고
 낭군도 출중하고 인심도 거룩한데
 매양 앓아 하는 말이 이포*가 많다 하고 걱정하더니
 함께 산 지 삼 년이 못 다가서
 성 쌓던 조 사또 도입하고 엄한 형벌 내려 수금하네
 수만 냥 밀린 빚을 들추어내니
 남쪽의 밭 북쪽의 논 좋은 땅이
 가을바람에 낙엽 지듯 떠나가네
 안팎으로 행랑채 줄지은 큰 기와집도
 하루아침에 남의 집 되고 앞단이에 맞은편 뒤주며
 큰 황소 절따말 서산나귀 대양푼 소양푼 세숫대야
 큰 술 작은 술 조그만 가마술 늦주걱 술국자 늦쟁반에
 옥식기 늦주발 실굽달이 개다리소반 옷걸이며
 대병풍 소병풍 산수병풍 자개함롱 반단이에
 무쇠독 다리쇠 받침 쌍용 그린 빗집고비
 걸쇠 등잔걸이 늦등잔 걸이에 백통 재판 청동화로
 요강 타구 재떨이 걸어가네 용두머리 장목비 아울러
 아주 훗쩍 다 팔아도 수천 냥 돈이 모자라서

일가친척에 도와 달라 하였으니

삼백 냥 이백 냥 일백 냥에

그중에도 가장 적은 것이 천 냥이라

어느 친척이 좋다 하며 어느 일가가 좋다 하리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이포: 아전이 공금을 사사로이 가져다 쓴 빚.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오만 냥 재산을 모두 다 쏟아내어
 나랏빚을 모두 다 갚고 나니
 시아버님은 곤장 맞고 덧이 나서
 일곱 달 만에 초상나고
 시어머님이 애가 타서 화병 나서
 초상 마친 뒤에 또 초상나니
 근 이십 명의 남녀 노비 시실새실 다 떠나가고
 시동생 형제들은 집밖으로 나가고
 다만 우리 내외만 남았구나
 남의 건넌방에 빌붙어서 곁방에서 살림살이 하자 하니
 콩이나 팥이나 양식 있나 노구솔 바가지 그릇 있나
 누가 나를 보고 돈을 줄까 이리저리 할 방도가 다시 없네
 하루 이를 굶고 보니 생목숨 죽기가 어려워라
 이 집에 가 밥을 빌고 저 집에 가 장을 빌어
 일정한 거처 없이 그리 저리 지내다니
 일가친척은 나올까 하고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
 두 번째는 눈치가 다르고 세 번째는 말을 하네
 우리 덕에 살던 사람 그 친구를 찾아가니
 그리 여러 번 안 왔는데 얼굴 앞에서 푸대접을 바로 하네
 무슨 신세 많이 저서 그제 오고 또 오는가
 우리 서방님 울적하여 이런 울화를 못 이겨서
 그 방안에 뒹굴면서 가슴 치며 통곡하네
 서방님아 서방님아 울지 말고 우리 둘이 가 보세
 이게 다 없는 탓이로다 어디로 가든지 벌어보세
 정처 없이 이리저리 빌어먹고 가노라니
 경주 읍내 당도하여 주인 불러 찾아드니
 손군뢰의 집이로다 둘러보니 큰 여각에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이 분주하다
 부엌으로 들이 달아 설거지 하는 데서 걸썩*하니
 모은 밥을 많이 준다 우리 내외 마주 앉아 실컷 먹고
 아궁이에나 자려 하니 주인 마누라 후하기로
 아궁이에 어찌 자려는가 방안에 들어와 자고 가게
 중노미 물러 당부하되 아까 그 사람들 불러들여
 봉긋방에 재우라고 당부하네
 두세 번 절하고 인사하니
 주인 마누라 가엾고 불쌍히 여겨 곁에 앉히고 하는 말이
 그대 내외들을 아무리 봐도 빌어먹을 사람들은 아니로세
 본디 어느 곳에 살았으며 어찌하여 저리되었나
 우리가 본디 살기는 상주 읍내 살았으나
 타고난 팔자가 괴이하고
 집안에 당한 재앙 너무나 참혹하여
 다만 두 몸이 살아나서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나이다
 사람을 보아도 온순하고 정직하니
 내외가 머슴살이 있어 주면
 바깥사람은 백오십 냥 주고 자네 새경*을 백 냥 줌세
 내외 새경을 합하고 보면 이백원 냥이 아니 되나
 몸은 비록 고되나마 입고 먹는 것이야 걱정인가

내 맘대로 어찌 하오리까 가장과 의논하겠나이다
 이내 봉긋방 나가 서방님을 불러내어
 서방님 소매 부여잡고 정답게 이르면서 하는 말이
 주인 마누라 하는 말이
 우리 내외 머슴살이 한다 하면
 이백오십 냥 준다 하니 허락하고 있사이다
 나는 부엌어멈 되고 서방님은 중노미 되어
 다섯 해 작정만 하고 보면 한 만 금을 못 벌겠나이가
 만 냥 돈만 벌었으면 그런대로 고향 가서
 이전만큼은 못 살아도 남에게 천대는 안 받으리
 서방님은 허락하고 지성으로 버사이다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걸썩: 어떤 일에 얼굴을 잠깐 비치거나 조금 상관함.

* 새경: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방님이 내 말 듣고 들의 낮을 한데 대고
 눈물 뿌려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말 듣게
 임상찰의 따님이요, 이상찰의 아들로서
 돈도 돈도 좋지마는 내사 내사 못하겠네
 그런대로 다니면서 빌어먹다 죽고 말지
 아무리 신세가 곤궁하나 군뢰놈의 머슴 되어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 무지한 이 욕을 어찌 볼꼬
 내 심사도 할 말 없고 자네 심사 어떠할꼬
 나도 울며 하는 말이 어찌 생전에 빌어먹소
 사나운 개가 무서워라 누가 밥을 좋아서 준다 하오
 밥은 빌어 먹으나마 옷은 누구에게 빌어 입소
 서방님아 그 말 말고 이전 일도 생각하오
 팔십 년 가난하던 강태공도
 삼천 일 허구한 날 낚시질 하였으나
 주 문왕을 만난 후에 팔십 년을 호화롭게 살았었고
 빨래하는 여인에게 얻어먹던 한신이도
 도중에 소년에게 욕보다가
 한고조를 만난 후에 한중대장 되었으니
 우리도 이리해서 벌어가지고 고향 가면
 이방을 못하며 호장을 못하리오
 부러울 게 무엇이오
 우리 서방님 하신 말씀
 난 하자면 하지마는 자네는 여인이라
 나만큼 할 지 모르겠네
 나는 조금도 염려 말고 그리 걱정하십시다
 주인 불러 하는 말이 우리 사환 할 것이니
 이백 냥은 우선 주고 쉰 냥은 갈 때 주오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심부름만 잘한다면 칠월벌이* 잘 된 후에
 쉰 냥 돈을 더 주겠네
 행주치마 털어 입고 부엌으로 들이 달아
 사발 대접 종지 접시 몇 죽 몇 개 헤아려서
 날마다 정리 정돈 숨씨 나게 잘도 한다
 우리 서방님 거동 보소 돈 이백 냥 받아 놓고
 일수 월수 돈 꾸주고 이자 받아 체계놀이*
 내 손으로 이름을 써 놓으며 주머니 안에다 간수한다
 석 자 수건 머리에 두르고서
 말죽 쑤기 소죽 쑤기 마당 쓸기 봉당 쓸기
 상 들이기 상 내가기 오며 가며 견어치운다
 평생에도 안 하던 일 눈치 보아 잘도 하네
 삼 년을 나고 보니 만여 금돈 되었구나
 우리 내외 마음 좋아 다섯 해 갈 것 없이
 돈 받기를 알뜰히 하여 내년에는 돌아가세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칠월벌이: 가을걷이.

* 체계놀이: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이자를 받아들이던 일.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병술년 괴질*이 닥쳤구나
 안팎 식솔 삼십여 명이 함빡 모두 병이 들어
 사흘 만에 깨어나 보니
 삼십 명 식솔들이 다 죽고서
 남은 이는 주인 하나 나 하나뿐이라
 수천 호가 다 죽고서 살아난 이 몇 없다네
 이 세상 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서방님 시신을 틀어잡고 기절하여 엎드려져서
 아주 죽을 줄 알았더니 겨우 인사를 차리었네
 애고 애고 어이할까 가엾고 불쌍하다
 서방님아 서방님아 아주 벌떡 일어나게
 천 리 넘는 타향까지 다만 내외 와서 있다 가서
 나만 하나 이곳 두고 죽는단 말 웬 말인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세
 이내 말만 명심하여 따르다가 삼사 년 공들인 일 헛일일세
 귀한 몸이 천하게 되어 만여 금돈 벌었더니
 일수 월수 받은 돈에 이자돈에 돈 쓴 사람 다 죽었네
 죽은 낭군 돈 달라나 죽은 사람 돈을 주나
 돈 낼 놈도 없거니와 돈 받은들 무엇할꼬
 돈은 같이 벌었으나 서방님이 없어지니 쓸데없네
 애고 애고 서방님아 살뜰히도 불쌍하다
 이럴 줄을 짐작하면 천한 일을 아니했지
 오 년 작정 하올 적에 잘살자고 한 일이지
 울면서도 마다할 적에 무슨 큰일이라 말 세웠던고
 군뢰놈의 무지한 욕설들을
 꿀과 같이 달게 듣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안 여기었네
 한번 정해 먹은 마음 한번 살자 했더니만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전생의 무슨 죄로 팔자가 이리한가
 금도 돈도 내사 싫네 서방님만 일어나게
 아무리 하늘 불러 애타게 통곡한들
 죽은 이는 다시 살기 어려우네
 아무래도 할 수 없어 그럭저럭 장사하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산목숨은 못 죽네
 억지로 못 죽고서 또다시 빌어먹네
 이 집 가고 저 집 가나 임자 없는 사람이라

- 작자 미상, 「텐동 어미 화전가」 -

* 괴질: 전염병으로 콜레라를 가리킴.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울산 읍내 황도령이 나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찌 저리 슬퍼하오
 하도 내 신세가 가난하고 구차하기로
 이내 마음 몹시도 슬프다오
 아무리 가난하고 구차한들 나처럼 가난하고 구차할까
 우리 집이 자손 귀해 오대 독자 우리 부친
 오십이 넘도록 자식 없어 일생 한탄이 무궁하다가
 천다섯에 낳 낳으니 육대 독자 나 하나라
 손안의 제일가는 보배같이
 안고 업고 겨우 키우더니
 세 살 먹어 모친 죽고 네 살 먹어 부친 죽어
 도와줄 가까운 친척이 본래 없어 외조모 손에 키워졌더라
 열네 살 먹어 외조모 죽고 열다섯 살에 외조부 죽고
 외사촌 형제 같이 있어 삼 년 상을 지냈더니
 남의 빚에 못 견뎌서 외사촌 형제 도망가고
 의탁할 곳이 전혀 없어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십여 년을 고생하니 장가 밀천 되더이다
 서울 장사가 남는다고 새경 받은 돈을 모두 받아내어
 참깨 열 통 무역하여 대동선에 부쳐 신고
 큰 북을 뚱뚱 울리면서 달 감는 소리 신명난다
 도사공은 키를 들고 입사공은 춤을 추네
 한없이 큰 바다로 떠나가니 신선놀음 이 아닌가
 해남관 앞바다를 지나다가
 바람 소리 일어나며 왈각 덜컥 파도 일어
 천둥 끝에 벼락 치듯
 물결은 출렁이며 산더미 같고 하늘은 캄캄하여 안 보이네
 수천 석 실은 그 큰 배가 회오리바람에 가랑잎 뜨듯
 빙 돌며 떠나가니 살 가망이 있을런가
 한없이 넓고도 큰 바다에 바라는 바 없이 떠나가다
 한 곳에 들이 받쳐 수천 석을 실은 배가
 조각조각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십 명 접꾼들이 언뜻 보이다가 사라지니 못 볼러라
 나도 역시 물에 빠져
 파도 머리 밀렸다가 마침 눈을 떠서 보니
 배 조각 하나 뚱뚱 떠서 내 앞으로 들어오니
 두 손으로 끌어 잡아 가슴에다 붙여놓으니
 물을 무수히 토하면서
 정신 조금 수습하니 아직 살긴 살았다마는
 아니 죽고 어찌할꼬
 오르는 파도 더미 손으로 헤치고
 내리는 파도 더미 가만히 있으니
 힘은 조금 들었지만 몇 달 며칠 기한 있나
 기한 없는 이 바다의 몇 달 며칠 살 수 있나
 밤인지 낮인지 정신없이 기한 없이 떠나간다
 풍랑소리 벼락 되고
 물거품이 구름 속에 흐릿하게 안개 되네
 물귀신의 울음소리 응얼응얼 귀 막힌다

- 작자 미상, 「텐동 어미 화전가」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때나 되었는지 풍랑소리 없어지고
 넓고도 큰 바다가 잠을 자고 까마귀 울음소리 들었거든
 눈을 들어 살펴보니 백사장이 보이는구나
 두 발로 박차면서 손으로 헤엄치니 백사장에 닿는구나
 엉금엉금 기어 나와 정신없이 누웠다가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다시 일어나 살펴보니
 나무도 풀도 돌도 없고 다만 해당화가 붉어 있다
 몇 날 며칠 굶었으니 배인들 아니 고평쓴가
 엉금 설설 기어가서 해당화꽃 따 먹으니
 정신이 점점 돌아와서 또 그 옆을 살펴보니
 절로 죽은 고기 하나 커다란 게 게 있구나
 불이 있어 구울 수 있나 생으로 실컷 먹고 나니
 본정신이 돌아와서 눈물도 울음도 인제 나네
 아무도 없는 외딴 섬의 백사장에 혼자 앉아 우노라니
 난데없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지나다가
 우는 걸 보고 괴이하게 여겨 배를 대고 나와서는
 나를 흔들며 하는 말이
 어찌 사람이 혼자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해라
 그제야 자세히 돌아보니
 육칠 명이 앉았는데 모두 다 어부여라
 그대들은 어디 살며 이 섬은 어디니까
 이 섬은 제주 한라섬이요 우리는 다 정의에서 왔노라
 고기 잡으러 지나다가 울음소리 따라왔다
 어느 곳의 사람으로 무슨 일로 예 와 우나
 나는 본디 울산에 살았는데 장삿길로 서울 가다가
 세찬 바람과 물결 만나 배 깨지고 물결에 밀려 내쳐졌으니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어느 곳인 줄 아오리까
 제주도 우리 조선이러니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오
 한 사람이 일어서며 손을 들어 가리키되
 제주 읍내 저리 가고, 대정 정의 이리 가지
 제주 읍내 가오리까 대정 정의 가오리까
 밥과 고기 많이 주며 자세히 일러주며 하는 말이
 이곳에서 제주읍 가자 하면 사십 리가 넉넉하다
 제주 관아 찾아들어 본 사정을 아뢰오면
 우선 입에 풀칠은 할 것이요 고향 가기 쉬우리라
 신신이 당부하고 배를 타고 떠나간다
 가리키던 그곳으로 제주 관아 찾아가니
 본관사또 들으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돈 오십 냥 내어 주고 전령 한 장 내주시며
 네 이곳에 있다가 왕래선 있거든
 사공 불러 전령 주면 뱃삿 없이 잘 가리라
 그럭저럭 세 달 만에 왕래선에 건너와서
 고향이라 돌아오니 돈 두 냥이 남았구나
 사기점에 찾아가서 두 냥어치 사기 지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도부*하며 밥일량은 빌어먹고
 서너 달을 하고 나니 돈 열댓 냥 되었지만
 삼십 넘은 노총각이 장가 밀천 가망 없네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언제 벌어 장가갈꼬

머슴 살아 사오백 냥 큰 바다 한 알의 좁쌀처럼 부쳐두고
 두 냥 밀천 다시 번들 언제 벌어 장가갈까
 그런 날도 살았는데 슬퍼 마오 울지 마오
 마누라도 슬프다 하되 내 설움만 못하오리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 따져 말하건대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의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들 서로 만나 같이 늙어가면 어떠하오
 가만히 곰곰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냥은 홍살문 안 사대부요
 큰 부자의 살림살이
 집안 재산 다 써 버리고 몸까지 망쳤으니
 즐거운 일 다 했으니 슬픈 일이 닥쳐왔나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 독자 내려오다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나 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내가 한 말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세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도부: 장사치가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팔.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감은 사기 한 짐 짊어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치고
 나는 사기 광주리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부*한다
 아침저녁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쪽 북쪽 마을마다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 백이나 될 만하면 둘 중 하나 병이 난다
 병구완에 약을 쓰며 하다 보면 남의 신세를 지게 되고
 다시 다녀 부지런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아
 또 돈 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마네
 도부장사 한 십 년 하니 장판지에 털이 빠져 없어지고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산 밑 주막에 영감을 머무르게 하여 놓고
 굶은 비 실실 오는 날에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북아치며 소낙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 무너지며 주막터를 빼 가지고
 동해수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누구런고
 건너다가 바라보니 넓고도 큰 바다 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히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주막에나 있었다면 같이 따라 죽을 것을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 이런 일을 아니 볼 걸
 금방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고
 도부 광주리 메다 박고 생각 없이 앉았으니
 억장이 무너져 기막히네
 죽었으면 좋겠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못 죽는구나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 맥네가 억지로 권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도 못하니라
 저승을 누가 가 보았나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훌쩍이며 하는 말이
 내 팔자를 세 번 고쳐 이런 액운이 또 닥쳐서
 시신도 한번 못 만지고 동해수에 죽어 영원히 이별하였으니
 애고애고 어찌어찌 살아볼꼬
 주인댁이 하는 말이 팔자 한번 또 고치게
 세 번 고쳐 곤한 팔자 네 번 고쳐 잘 살는지
 세상일은 모르나니 그런대로 살아보게
 다른 말도 할 것 없이 저 꽃나무 두고 보지
 이삼 월에 봄바람 불면 꽃봉오리 고운 빛을
 벌은 앵앵 노래하며 나비 펼 펼 춤을 추고
 놀이객은 왕왕 놀다 가고 산새는 영영 흥이 나서 즐거워라
 오뉴월 더운 날에 꽃은 지고 잎만 나면
 녹음이 온 땅에 가득하면 좋은 경치가 별로 없다
 팔구월에 가을바람 불어오니 잎사귀조차 떨어진다
 동지선달 눈보라 찬바람에 찬 기운을 못 견디다가

다시 봄바람이 들이 불면
 다시 봄꽃 피어나고 비온 뒤에 붉어지니
 자네 신세 생각하면 눈보라 찬바람을 만남이라
 즐거운 일 다하여서 슬픈 일이 온 뒤에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 것이니
 팔자 한번 다시 고쳐 좋은 바람을 기다리게
 꽃나무 같이 봄바람 만나
 가지가지 만발할 때 향기 나고 빛이 난다
 꽃 떨어지자 열매 열려 그 열매가 종자 되어
 천만 년을 전하나니 귀동자 하나 낳았으면
 장수하고 부귀하며 자식 많이 낳으리라
 여보시오 그 말 마오 이십 삼십에 못 둔 자식
 사십 오십에 아들 낳아
 자식 덕을 본단 말을 못 들었네
 아들 덕을 볼 터이면 이십 삼십에 아들 낳아
 사십 오십에 자식 덕을 보겠지만
 내 팔자는 그뿐이오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도부: 장사치가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팔.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람아 그 말 말고 이내 말을 자세히 듣게
 눈보라 찬바람에도 꽃 피던가 봄바람이 불어야 꽃이 피지
 때가 아니 되었는데 꽃 피던가 때를 만나야 꽃이 피지
 꽃이 필 때라야 꽃이 피지 꽃 아니 필 때 꽃이 피던가
 봄바람만 들이 불면 누가 시켜서 꽃이 피던가
 제가 저절로 꽃이 필 때 누가 막아서 못 피던가
 고운 꽃이 피고 보면 귀한 열매 또 여나니
 이 뒷집의 조서방이 다만 내외 있다가
 먼저 달에 아내 잃고 지금 혼자 살림하니
 저 먹기는 태평이나 그도 또한 가련하니
 팔자 또 고쳐 내 말대로 살아보게
 지나간 일 생각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
 마지못해 허락하니 그 집으로 인도하네
 그 집으로 들이 달아 우선 영감을 자세히 보니
 나이는 비록 많으나마 생김새가 든든하고 순하고도 후덕하다
 영감은 무엇으로 먹고 사오
 내 하는 일 옛장사라
 마누라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나
 내 팔자가 무상하여 오랜 세월 수많은 고생을 다 겪었소
 그날부터 내외 되어 영감 할미 살림한다
 나는 집에서 살림하고 영감은 다니며 옛장사라
 호두약엿 잣박산에 참깨박산 콩박산에
 산사과 빈사과를 고루고루 갖추어 두면
 상자 고리에 담아 지고 장마다 다니면서 매매한다
 의성장 안동장 풍산장과 노루골 내성장 풍기장에
 한 달 육장 장날마다 다녀보니
 옛장사 조침지 특별한 이름 되네
 한 달 두 달 이태 삼 년 사노라니
 어찌하다가 태기 있어 열 달 배불러 해산하니
 참말로 일개 옥동자라 영감도 오십에 첫아들 보고
 나도 오십에 첫 아이라 영감 할미 마음 좋아
 어리장 고리장 사랑한다
 젊어 어찌 아니 나고 늙어 어찌 생겼는고
 즐거운 일 다한 뒤에 슬픈 일을 겪은 나도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려는가
 회한하고 이상하다 둥개둥둥* 일이로다
 둥개둥개 둥개야, 아가 둥개 둥둥개야
 금자동아 옥자동아 섬마 둥개 둥둥귀 섬마개야
 부자동아 귀자동아 놀아라 둥개 둥둥개야
 앓아라 둥개 둥둥개야 셋거라 둥개둥 둥개야
 궁둥이를 툭툭 쳐도 보고 입도 쪽쪽 맞춰보고
 그 자식이 잘도 났네 이제야 한번 살아보지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둥개둥둥: 아기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창 이리 놀리다가 어떤 친구 오더니만
수동별신굿 큰 별신굿을 아무 날부터 시작하니
밑천이 적거들랑 뒷돈은 내 대 줘세
호두약엿 많이 고고 갖은 박산 많이 하게
이번에는 좋은 수가 날 것이라
영감님이 옹게 듣고
참쌀 사고 기름 사고 호두 사고 치자 사고
참깨 사고 밤도 사고 칠팔십 냥 밑천이라
닷둥이들이 큰 솔에다 삼사 일을 고노라니
한밤중에 바람 일자 굴뚝으로 불이 났네
온 집안에 불붙어서 불빛이 하늘에 가득하니
의식 잃고 정신없어 그 엿물을 다 퍼 엮고
안방으로 들이 달아 아들 안고 나오다가
불더미에 엎어져서 구불면서 나와보니
영감은 간 곳 없고 불만 자꾸 타는구나
이웃 사람 하는 말이 애 살리러 들어가더니
아직까지 안 나오니 벌써 죽었구나
한 마룻대 떨어지니 기둥조차 다 탔구나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여기저기 헤치면서 찾아보니
포수 놈이 불고기 하듯 아주 함박 구웠구나
이런 망할 일이 또 있는가
나도 같이 죽으려고 불덩이로 달려드니
동네 사람들이 붙들어서 아무리 몸부림하나
아주 죽지도 못하고서 온 몸이 콩과줄* 되었구나
이런 년의 팔자 있나 깜짝 사이 영감 죽어
모든 혼백들이 불꽃 되어
불티와 같이 동행하여 아주 펄펄 날아가고
귀한 아들도 불에 데어 죽는다고 소리치니
영아영아 우는 소리 이내 창자 끊어진다
세상사가 귀찮아서 이웃집에 가 누웠더니
텐둥이를 안고 와서 가슴을 헤치고 젖 물리며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 아이 젖 먹이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어린 아기 젖 먹이게 우는 거동 못 보겠네
일어나서 젖 먹이게
나도 아주 죽으려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그 거동을 어찌 보나 아주 죽어 모르려네
데인다고 다 죽는가 불에 텐 이 허다하지
그 어미라야 살려내지 다른 이는 못 살리네
자네 한번 죽어지면 살 것이라도 아니 죽겠는가
자네 죽고 애 죽으면 조침지는 아주 죽네
살아날 것 죽고 보면 그도 또한 할 일인가
조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애 살리게
어린 것만 살고 보면 조침지는 사뭇 안 죽었네
그 댁네 말은 옹게 듣고 마지못해 일어나 앉아
약치레하며 젖먹이니 서너 달 만에 나왔으나
살았다고 할 것 없네 갖은 병신이 되었구나
한쪽 손은 오그라져 조막손*이 되어 있고

한쪽 다리 빠드러져 발장다리* 되었으니
성한 이도 어렵거늘 갖은 병신 어찌 살꼬
손발 없는 아들 하나 병신을 볼 수 있나
텐 자식을 젖 물리고 달래듯 안고 생각하니
지난 일도 기막히고 이 앞 일도 가련하다
건널수록 물도 깊고 넘을수록 산도 높다
어떤 년의 고생팔자 일평생이 고생인고
이내 나이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 슬퍼
자식이나 성했으면 제나 믿고 살지마는
나이 점점 많아가니 몸은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 작자 미상, 「텐동 어미 화전가」 -

* 콩과줄: 콩을 넣은 한과.

* 조막손: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 펴지 못하는 손.

* 발장다리: 두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다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뎨동이를 들쳐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쭉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붙여귀 붙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녀이로다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움을 불러내나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녀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녀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임의 녀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녀이라도 반가워라
 근 오십 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꼬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첨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 되어 천만년이나 살아 볼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첫째 낭군은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 번 잘 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첫째 낭군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잖고 저 새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귀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할까
 잔디밭에 떨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싫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 보세
 내 설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무슨 설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위하나
 노인께선 들어가오 내 설움 알아 쓸데없소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싫은가
 간 곳마다 그러리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지금은 어찌 사나이까
 그 집이 벌써 결단 나고 지금은 아무도 없느니라
 더군다나 통곡하니 그 집을 어찌 알았던가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우리 집과 오촌이라
 자세히 본들 알 수 있나 아무 형님이 아니신가
 달려들어 두 손 잡고 통곡하며 슬피하니

그 노인도 알지 못해 형님이란 말이 웬말이고
 그러나 저러나 들어가세
 손목 잡고 들어가니 청삼사리 킁킁 짓어
 난 모른다고 소리치고
 큰 대문 안 거위 한 쌍이 거욱거욱 달려드네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데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 하고 신명타령 다 못할러라

- 작자 미상, 「뎨동 어미 화전가」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송이 밤송이 다 썬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 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 하겠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그러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리려네
고생 팔자 타고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이지
이팔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아무 동네 화령댁은 스물하나에 혼자되어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다섯 달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마는
아무 동네 장림댁은 갓 스물에 청상 되어
제가 춘광*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앓은뱅이 되었다네
아무 마을 안동댁도 열아홉에 남편상 당하고서
제가 공연히 미친 듯이 날뛰다가
내성으로 간다더니 서방놈에게 매를 맞아
골병이 들어서 죽었다네
아무 집의 월동댁도 스물둘에 과부 되어
제 집 소실 모함하고 예천으로 가더니만
전처 자식 몹시도 구박하다 서방에게 쫓겨나고
아무 곳에 단양이네 갓 스물에 가장 죽고
남의 첩 가더니만 큰어미*가 사나워서
하루 종일 일년 내내 싸우다가 비상*을 먹고 죽었다네
이 사람네 이리 될 줄 온 세상이 아는 바라
그 사람네 개가할 때 잘 되자고 갔지마는
팔자는 고쳤으나 고생은 못 고치네
고생을 못 고칠 때 그 사람도 후회하리
후회한들 어찌할꼬 죽을 고생 아니 하니
내 고생을 남 못 주고 남의 고생 안 하나니
큰 고생을 안 할 사람 남편부터 아니 잃지
제 고생을 제가 하지 내 고생을 누가 할꼬
남편상부터 치루는 사람 큰 고생을 하느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생각하되
개가해서 잘되는 이 백에 하나 아니 되네
부디부디 가지 말게
개가 가서 고생보다 수절 고생 호강이니
수절로 고생하는 사람 남이라도 귀히 보고
개가로 고생하는 사람 남이라도 그르게 본다네
고생 팔자 고생이니 오래 살고 못 살고는 상관없지
죽을 고생 하는 사람 칠팔십도 살아 있고
부귀호강 하는 사람 이팔청춘 일찍 죽어
고생하는 사람 덜 살지 않고 호강하는 사람 더 살지 않네
고생이라도 한이 있고 호강이라도 한이 있어
호강살이 제 팔자요 고생살이도 제 팔자라
남의 고생 꺾다 하나 한탄한들 무엇할꼬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단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좋은 시절 화전놀이 왔거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이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치 아니한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니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로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춘광: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 큰어미: 본처.

* 비상: 독약.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환하게 모두 다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하나하나 모두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자로 부쳐두고
 꽃 같고 달 같은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가랑비와 봄바람에 부쳐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마음속에 쌓인 근심 복숭아꽃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천만 겹이나 쌓인 시름 웃음 끝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네
 굽이굽이 깊은 시름 그 말끝에 술술 풀려
 한겨울 눈보라에 쌓인 눈이 봄 춘자 만나 실실 녹네
 자네 말은 봄 춘자요 내 생각은 꽃 화자라
 봄 춘자 만나 꽃 화자요 꽃 화자 만나 봄 춘자라
 얼씨구나 좋을시고 좋을시고 봄 춘자
 화전놀이 봄 춘자 봄 춘자 노래 들어보소
 가련하다 이팔청춘
 내게 마땅한 봄 춘자
 늙어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봄 맞으니
 덴동어미 봄 춘자
 노인들은 한결 같은 봄인 듯 장수하니
 우리 부모님 봄 춘자
 계수나무 잎 가득하여 우리 집에 봄이 오니
 우리 자손의 봄 춘자
 금가지에 옥 잎 나서 궁궐에도 봄이 오니
 우리 임금님의 봄 춘자
 구름 되고 비가 되어 만나나니
 서왕모의 봄 춘자
 여덟 선녀 즐거운 꿈 구운몽의 꿈을 꾸니
 구운몽 성진의 봄 춘자
 봉구황곡 들으면서 비로소 깨달으니
 영양공주 정경패의 봄 춘자
 신령한 까치 날아 기쁜 소식 알려주니
 난양공주 이소화의 봄 춘자
 세다섯 별 드문드문 정히 동녘에 떠 있으니
 진채봉의 봄 춘자
 귀신인 듯 신선인 듯 걸음걸음 하였으니
 가춘운의 봄 춘자
 당대의 문장이 스스로 다 모였으니
 계섬월의 봄 춘자
 절색으로 하북에서 이름을 드날리니
 적경홍의 봄 춘자
 옥문관 밖 봄빛이 이미 가득하니
 심요연의 봄 춘자
 청수담 밖 그윽한 골짜기의
 백릉파의 봄 춘자
 온 우주가 다 봄이니
 제일 좋은 봄 춘자
 고향 가는 도중에 늦봄임을 알게 됨은

말 위 나그네의 봄 춘자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아니하니
 왕소군의 봄 춘자
 그대를 전송하며 곁해 봄을 전송하는
 이별하는 봄 춘자
 해 지는 집집마다 봄이었는데
 천리 길 나그네의 봄 춘자
 누각에 올라 고향 봄을 그리워하니
 강 위 나그네의 봄 춘자
 다섯 그루 버드나무에 봄 오는 줄 몰랐던
 도연명의 봄 춘자
 누런 모래 흰 풀에 본래 봄이 오지 않는
 머나먼 만리 변방의 봄 춘자
 따뜻한 봄별이 줄지 않으니
 고국을 생각한 봄 춘자
 큰 소리로 시 읊으며 동정호를 지나가는
 여동빈의 봄 춘자
 오호의 조각배에 몸을 가득 실었으니
 월서시의 봄 춘자
 머리 돌려 한번 옷자 육궁에 봄이 오니
 양귀비의 봄 춘자
 주상 얼굴 고우시니 온 세상의 봄이로다
 태평하고 편안한 세상의 봄 춘자
 술에 취해 서른 번의 봄이 지났으니
 이태백의 봄 춘자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깃배를 거슬러 타고 봄산을 즐기노니
 바뀌지 않는 신선의 땅 봄 춘자
 양자강 나루터에 봄 버들이 하늘거리니
 문양으로 돌아가는 슬픈 객의 봄 춘자
 복숭아꽃 오얏꽃은 봄날 잠시 피었나 지니
 기생집의 젊은 기생 봄 춘자
 천하가 태평한 봄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봄 춘자
 바람이 연 향기를 물가로 실어오는 봄은
 고소대 아래에서 잔치하는 봄 춘자
 온갖 봄꽃 향기 한데 섞여 진동하는
 비 그친 수많은 봉우리의 봄 춘자
 만리강산에 봄이 끝없으니
 산으로 나들이하는 봄 춘자
 산 아래 산 중턱에 꽃 빛깔이 붉었으니
 흥정골택 봄 춘자
 냇물에 달이 뜨니 꿈인가 꽃이런가
 골내택네 봄 춘자
 밝은 모래 십 리인데 해당화가 피었으니
 새내택네 봄 춘자
 밝고 밝은 복숭아꽃 가득 피었나니
 도화동택 봄 춘자
 목동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니
 행정택네 봄 춘자
 홍도화가 집집마다 가득 피었으니
 도지미택네 봄 춘자
 배꽃이 골짜기에 가득 피었으니
 회여골택네 봄 춘자
 마을마다 연기가 올라오는 이월이니
 연동택네 봄 춘자
 마을마다 수양버들 늘어져서 푸르르니
 오양골택네 봄 춘자
 비 그치고 무지개가 서로 어울리니
 흥다리택 봄 춘자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 집집마다 오래가니
 안동택네 봄 춘자
 새 울음 가득하여 골짜기에 또렷하니
 소리실택 봄 춘자
 아름다운 연꽃이 맑은 물에서 나왔으니
 늦점택네 봄 춘자
 비 그친 다리에서 셋별이 바라보니
 청다리택 봄 춘자
 강남에서 연꽃을 따려하니
 남동택네 봄 춘자
 영산홍의 꽃 그림자 어리노니
 영출택네 봄 춘자
 따뜻한 봄 온갖 생명 산을 붉게 물드르니
 질막택네 봄 춘자

아득한 강가에는 가랑비가 내리는데
 우수골택 봄 춘자
 십리 긴 숲은 화려한 옷 걸쳤으니
 단양택네 봄 춘자
 맑은 바람 살살 불어 청풍택네 봄 춘자
 비온 덕에 꽃이 핀다
 닥고대택네 봄 춘자
 바람 끝에 봄이 온다 풍기택네 봄 춘자
 비봉산의 봄 춘자 화전놀이 흥이 나네
 봄 춘자로 노래하니 좋을시고 봄 춘자
 봄 춘자가 못 가게 실버들로 꼭 조여매게
 봄날이 나그네처럼 지나간다
 앵무새야 만류해라 바람아 불지 마라
 뜰 가득한 복숭아꽃 떨어진다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여쁠사 어린 낭자 의복단장 제대로 하고
 방긋 웃고 썩 나서며 좋다좋다 얼씨구 좋다
 잘도 하네 잘도 하네 봄 춘자 노래 잘도 하네
 봄 춘자 노래 다했는가 꽃 화자 타령 내가 함세
 꽃과 물이 함께 흘러가는 물에
 얼굴 가득했던 수심을 세수하고
 꽃 화자 얼굴 단장하고 반만 웃고 돌아서니
 해사스럽게 웃는 모양 해당화와 한가지요
 노을처럼 붉은 앵두 붉은 홍동화가 빛이 곱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온 몸이 꽃 화자라
 꽃 화자 같은 이 사람이 꽃 화자 타령 하여 보세
 좋을시고 좋을시고 꽃 화자가 좋을시고
 봄을 알리려는 꽃바람이 다시 불어
 따뜻한 봄 모든 생명 흐르러지는 꽃 화자라
 대청 위 천년 동안 장수 하실 장생화는
 우리 부모님 꽃 화자요
 무릎 아래 오랜 세월 이어나갈 무궁화는
 우리 자손의 꽃 화자요
 요지연에 삼천년 만에 핀 벽도화는
 서왕모의 꽃 화자요
 천 년에 한 번 피는 천수화는
 광한전의 꽃 화자요
 극락전의 선비화는
 석가여래 꽃 화자요
 천태산의 노고화는
 마고선녀 꽃 화자요
 춘당댁의 선리화는
 우리 임금님 꽃 화자요
 비온 뒤에 붉어진 부귀한 봄꽃들은
 우리 집의 꽃 화자요
 간절히 바라도 잊지 못할 상사화는
 우리 낭군의 꽃 화자요
 천리 타향의 한 그루 꽃은
 귀양 사는 문인의 꽃 화자요
 달 가운데 피어난 계수나무 붉은 꽃은
 월궁 향아의 꽃 화자요
 황금집의 금은화는
 석가모니의 꽃 화자요
 해바라기 하는 축규화는
 등장군의 꽃 화자요
 귀축도 귀축도 두견화는
 초 회왕의 꽃 화자요
 밝은 모래 십 리에 핀 해당화는
 바다 위 신선들의 꽃 화자요
 돌다리 위 봉선화는
 구운몽 성진의 화자요
 승화산에 피어 있는 흰 오얏꽃은
 이적선의 꽃 화자요

용산에서 관모가 떨어질 때 핀 황국화는
 도연명의 꽃 화자요
 백룡퇴 사막의 푸른 무덤에 핀 꽃은
 왕소군의 꽃 화자요
 마외역에 피어난 양귀비의 꽃은
 당 현종의 꽃 화자요
 첩첩한 산속의 철쭉꽃은
 팔십 노승의 꽃 화자요
 울긋불긋 짙레꽃은
 조카딸네 꽃 화자요
 봄날 잠시 피어나는 복숭아꽃 오얏꽃은
 기생집의 젊은 기생 꽃 화자요
 목동이 가리키는 곳에 핀 살구꽃은
 술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꽃 화자요
 강남의 붉은 연꽃은
 전당 호수 위에 핀 꽃 화자요
 꽃 중의 제일인 모란화는
 꽃 중에도 어른이요
 기생집 창문 앞의 옥매화는
 꽃 화자 중에 미인이요
 꽃 섬돌 위에 핀 함박꽃은
 꽃 화자 중에 우리를 만하구나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다 많은 꽃 화자가 좋고 좋은 꽃 화자나
 화전하는 꽃 화자는 참꽃 화자가 제일이라
 다른 꽃 화자는 그만두고 참꽃 화자 화전 하세
 젓가락으로 집어먹으니 향기 입속 가득하고
 한 해의 꽃 화자가 뱃속으로 전해오네
 향기로운 꽃 화자 전을 우리만 먹어 되겠는가
 꽃 화자 전 매우 많이 부쳐 꽃가지 꺾어 많이 싸다가
 장생화 같은 우리 부모 꽃 화자로 받들어 모셔보세
 꽃다울사 우리 아들 꽃 화자로 먹여 보세
 꽃과 같은 우리 아기 꽃 화자로 달래 보세
 꽃 화자 타령 잘도 하니 노래 속에 향기난다
 나비 필필 날아들어 꽃 화자를 찾아오고
 꽃 화자 타령 들으려고 난새 봉황 공작이 날아오고
 뼈꾸기 피꼬리 날아와서 꽃 화자 노래에 화답하고
 꽃바람은 실실 불어 옥을 깨뜨리듯 고운 목소리 가져가고
 푸른 산에 흘러가는 물소리는 꽃노래를 어우르고
 붉은 노을이 일어나며 꽃노래를 어리고
 오색 구름 일어나며 머리 위에 둥둥 뜨니
 하늘의 신선들이 내려와서 꽃노래를 듣는가 봐
 여러 부인이 칭찬하니 꽃노래도 잘도 하네
 덴동어미 한번 만나 자네의 꽃 따며 불러
 만난 사람 노래하니 우리 마음 더욱 좋으니
 신선놀음 이 좌석에 꽃노래가 좋을시고
 꽃노래도 하자 하니 우리 다시 할 것 없네
 굶은 맘이 없어지고 착한 맘이 돌아오고
 걱정 근심 없어지고 흥취 있게 놀았으니
 신선놀음 누가 봤나 신선놀이 한 듯하니
 신선놀음 다름 손가 신선놀음 이와 같지
 화전놀이 흥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벌써 석양일세
 사월 해가 더디더니 오늘 해는 짧도다
 하느님이 감동하셔 사흘 해만 더 맡아 주소
 사흘 해를 더 맡아도 하루 해는 마찬가지로
 해도 해도 길고 보면 실컷 놀고 가지마는
 해도 해도 짧을시고 이내 그만 해가 가네
 산그늘은 물 건너고 까막까치 자려 드네
 각기 귀가 하리로다 언제 다시 돌아볼꼬
 꽃 없이는 재미없어 내년 삼월 돌아보세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